"풀사료 적기 관리, 생육 회복 좌우"

농촌진흥청, 월동 후 철저한 재배 관리 당부

롤러 부착 트랙터의 진압 사진

가을 파종 지연과 한파 영향으로 동계 사료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월동 후 철저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파종이 늦어지고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계 사료작물의 생육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봄철 생육 회복을 위한 적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전국 동계 사료작물 생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잦은 강우로 볏짚 수거와 파종이 지연되면서 일부 재배지에서 생육 부진이 확인됐다.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로 겨울을 난 사료작물은 한파와 폭설에 취약해 냉해와 습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누적되면 생육 지연이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월동 후 적절한 재배 관리로 봄철 생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 적기는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다.

먼저 눌러주기(진압) 작업을 실시해 토양과 뿌리를 밀착시켜 뿌리 들뜸을 방지하고, 뿌리 활착을 안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웃거름은 월동 후 생육이 재개되는 이른 봄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헥타르당 질소 100kg(요소 10~11포), 호밀과 청보리는 헥타르당 질소 60~70kg(요소 6~7포)이 적정량이다.

또한 겨울철 폭설과 봄철 강우로 논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물꼬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을철 파종을 하지 못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재배지, 한파 피해를 입은 곳은 봄 파종을 통해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다. 재배지 상태에 따라 전체 재파종이나 부분 파종(보파)을 선택하고, 봄철 생육기간이 약 3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출수가 빠른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오종헌)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휴식·안전 보장 행복한 일터 조성

국민연금공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 가져

국민연금공단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공동 실천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오종헌)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공단과 노조가 실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의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근무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야근과 회의 등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 직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푸드테크 혁신 협력 모색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는 특구 지역이 익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익산 소재 농식품 전문기관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과의 협업을 본격화하고, K-푸드 혁신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 행사를 1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특구 육성자문단' 혁신기관 교류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전북특구를 비롯한 기술사업화 혁신기관 관계자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식품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푸드테크 신사업 발굴과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17개 혁신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했다.

식품진흥원은 미래 유망 식품 산업 육성 전략과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혁신 방안 등 올해 추진 목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푸드테크 적용 기술과 기업 지원 노하우를 식품진흥원의 인프라와 결합해 전북 지역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식품패키징센터 등 주요 기업 지원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고도화된 장비 인프라와 혁신기관의 핵심 역량을 연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전북특구와 육성자문단은 인프라 공유와 기관 간 역량 결집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공감하고, 향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상생 708억원 금융지원… 전북은행, 25억5000만원 특별출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5억5천만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70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경영애로기업', '첫만남기업', '성장발전기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북TP·국립군산대, ChatGPT 재직자 교육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재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은 10일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2차년도 ChatGPT 재직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 입주기업을 비롯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분야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산업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에너지 산업 맥락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인 사업기획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오상근 기자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3764억원 신규 보증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센터장 홍영석·이하 농신보 정읍센터)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64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 지원에 나선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기치 아래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 농어촌 경제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이어왔으며, 청년 농림어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증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도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능동적인 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보증잔액 8,177억 원을 달성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지역사회 상생 나눔 활동 전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하 바이오진흥원)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선다.

바이오진흥원은 2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사회공헌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나눔에는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맑은상회에프앤비, 전북은행 등 도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기부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삼성휴먼빌을 포함한 도내 복지시설 4곳으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과 현물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